

## 박근혜후보 조카, 신동욱납치배후 법정증언하다 피살

### ○ 박근혜 조카 피살관련 경찰 수사발표내용

#### <경찰>

1. 피의자 박용수는 피해자 박용철과 사촌형제 간으로 평소 피해자 박용철이 자신을 무시하고 망신을 준다는 이유로 2011. 9. 6. 01:10 ~ 05:30경 강북구 수유동 소재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 앞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 차에 태워 데리고 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것임
2.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망치 1점과 주변 개울가에서 길이 16.5cm의 칼 1점을 수거.
3. 2011. 9. 6. 10:40경 북한산 용암문 부근 산속에서 목 맨 채 사망한 피의자 박용수를 발견. 박용수 유서 발견. 범행에 사용된 흉기 및 피의자 의류와 손에 묻어 있는 혈흔이 피해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 등으로 피의자로 특정
4. 2011. 10. 7 살인사건은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 으로 서울 북부지검에 송치돼
5. 2011. 10. 12 피의자 변사사건 **내사종결**

### ○ 박근혜후보 조카 피살당일 행적

#### 2011. 9. 5 ~ 9. 6일

- 15시 박용철이 용수에게 전화로 만나자
- 19시 강남구 신사동 뺨에서 1차  
후배 황모씨(박용수랑 친분) 동석
- 21시 성동구 왕십리 노래방 2차  
후배 황모씨(박용수랑 친분) 동석
- 23:40분 박용철과 친분 있던 김모씨(44세 동석)
- 24:12분 대리운전 불러서 용철, 용수가 노래방 나가 일산으로 출발. 용철이 잠을 자자 용수가 수유리 방면으로 행선지 변경
- 01:00분 수유리 419사거리 도착. 박용수가 대리기사에게 돈을 주고 수면상태인 용철을 승차시킨 채 사건현장으로 운행

○ 박용철 피살전 일지

구분	내용	비고
출생	- 박정희의 둘째형 박무희의 <b>자 재석의 아들(용철)</b> - 박정희의 둘째형 박무희의 <b>자 재호의 아들(용수)</b>	박근혜와 5촌 용철-용수 4촌
2005~6년	- 한국 입국	
2007.7.1	- 신동욱과 중국 청도행	
2007.11.28	- 육영재단이사장 박근령 쫓아내기 위해 한센인 100여명과 육영재단 폭력사태	
08.5~09.2	-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	<b>후임 정용희</b>
2010.5.28	○ 2010고단111 제4회 공판 증인 출석 - 박지만이 신동욱 납치사주한 일 없다(3p) - 박지만회장으로 부터 보상받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5p) - 정용희 주도이지 박지만회장 지시는 아닙니다.(13p)	<b>2010고단111 (제4회)</b>
2009.6.18	- 검찰, <육영재단> 폭력사태 벌금형	
2010.7.28	- “박용철 양심선언을 할 것이 있으니 신동욱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 (이민경)	
2010.8.9	○ 신동욱-이민경 통화 (박용철 “박지만회장이 지시했다. 녹음해놓은 것이 있다”)	
2010.8.12	○ 신동욱-박용철 통화 - 조카님 입만 막으면 이거는 영원히 묻을 수도 있고(신동욱) = 내가 쉽게 당하는 사람 아닙니다.(용철)	
2010.8.16	○ 신동욱-박근령-박용철 - 일단 제가 들이대볼라고 그랬던거죠. 테잎을요. 좀 던져보면..(박용철)	
2011.7.26	- 1988년 이민갔던 부인 등 귀국 일산 거주	식사지구
2010.9.1	○ 2010고단111 제8회 공판 증인 출석 <진술요지> - “신교수를 죽이라고 박지만회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고 통장으로 비용을 붙여준 증빙이 있다. 난 혼자 그냥 죽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 증인도 노이로제였습니다.(공판조서 3-4p) = 정용희가 증인에게 “박지만회장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인(박용철)이 녹음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 “원본은 캐나다에 갖다놨죠” 라고 하였는데 테잎의 존재는 인정하는 것인가요? = 예(공판조서 7p) - 진술서 내용에 이민경과 대화에서 “테잎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라고 작성돼 있는데 맞는가요? = 테잎이라 할 것도 없고 증인(박용철)이 핸드폰에 녹음해 놓은 것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캐나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공판조서 11p)	<b>2010고단111 (제8회)</b>
2011.9.6	- 2011. 9. 6 01:30~05:30 피살	<b>피살</b>

## [의혹1] : 박용수-용철간 원한?

### (경찰에 따르면)

- 피의자 박용수는 피해자 박용철과 사촌형제 간으로 평소 피해자 박용철이 자신을 무시하고 망신을 준다는 이유로 2011. 9. 6. 01:10 ~ 05:30경 강북구 수유동 소재 북한산국립공원 수유분소 앞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자 차에 태워 데리고 가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것이라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용철, 용수간에 억대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내용
-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두사람의 계좌 36개를 추적했지만 금전거래는 없다고. 사건 직전 날 만났을 때도 두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지인을 더 부르는 분위기였다고. 박용철 부인도 박용철이 누구에게 원한을 살 사람은 아니라고 함.

### (박용철에 원한을 살만한 사람, 2-3명)

#### 1. 법원에서 정용희를 구타(2010. 9. 1 제8차 공판조서)

문     증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는가요.

답     예, 정용희와 같이 증인도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원에서 정용희를 때려서 증인은 벌을 무겁게 받았는데, 증인에게 이 일을 시켜놓고 변호사를 선임해 준적도 없고 수고했다고 말을 해 준 적도 없는데, 항간에 소문이 피고인 신동욱이 증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중국 테러사건으로 인한 입막음용으로 증인이 썬질방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돈을 대줬다는 소문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천불이 난 것입니다. 돈 한 푼 대준 적이 없고 증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친구들과 편당하여서 만든 것입니다.

#### 2 박근령이 '육영재단 폭력행사 건'으로 박지만, 정용희, 박용철을 고소해 징역 6개월 벌금 200만원 선고

3. 신동욱(박근령 남편)과 중국 동행, 청부살해 고소사건 등에 연루 2회 이상 법정진술 후 추가 진술 예정인 상태에서 피살. 특히 8차 진술에서 박근령/신동욱에 유리한 진술

<2010. 9. 1 제8차 공판조서>

문 이민경이 자신하고도 연락이 안 된지 오래 되었으니 자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증인은 “신교수를 죽이라고 박지만 회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고, 통장으로 비용을 붙여준 증빙이 있다. 나 혼자 그냥 죽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문 또한 피고인 신동욱이 “아니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거를 주는데, 그 뭐 녹취록한 것 딱 넘겨주는데, 전에 저하고 그 저기 어딴니까, 추어탕 집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 딱 그대로 기록돼가 있는데, 그 뭐 억울하다, 양심선언하겠다, 박지만 회장이 중국에서 죽이라고 한 것.”이라는 질문에 증인은 “하여튼 제 입장에서 저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이때 참고자료 8 진술서를 제시하고)

문 진술서 내용 중에 이민경과의 대화에서 ‘테일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고 진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답 테일이라고 할 것도 없고 증인이 핸드폰에 녹음한 것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캐나다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 박용철(용수) 죽음에 대해 박근혜측 반응

- “자신을 고모라 부르는 조카들과 왕래가 없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 언급
- 실제로는 박용철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관장(08.5~09.2)** 역임한 자이고 <EG그룹>회장 박지만 최측근이라는 점. 박용철 후임 어린이회관 과장은 정용희라는 사실



## [의혹2] 박근혜후보 조카2명 모두 피살전 향정신성의약품 2종 검출

- 경찰발표 내용을 보면 형 용수가 동생 용철이를 죽이고 자신은 목매서 자살했다고. 미리 준비한 칼이 발견됐고, 피의자(박용수) 유서가 발견됐고, 피의자 의류에서 피해자 박용철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발표문 어디에도 피살자 박용철의 혈액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 디아제팜이 검출됐다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음
  - 국과수 조사결과, 박용철에게서는 **졸피뎀 0.52mg/ L, 디아제팜 0.25mg/ L** 검출됐고 **혈중 알콜농도는 0.196%**라고 한다.
  - 졸피뎀은 신경안정제, 향정신성의약품이고 독성농도가 **0.5mg/ L**이며 술과 함께 과량 복용하여 사망한 예에서 졸피뎀 농도는 **0.8-0.9mg/ L**, 혈중알콜농도 **0.24-0.25mg/ L**로 알콜과 상호작용 있는 약물
  - 박용철이 **0.52mg**이고 당시 혈중알콜이 **0.16%**로 사망사례에는 극히 경미한 차이가 있지만 이 정도면 수사단서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발표에서도 뺐다. 그 경위가 의심
  - 디아제팜 역시 상품명 <바리움정>이며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 치료농도 **0.125mg/ L-1.5mg/ L**라고. 박용철 혈중 **디아제팜 검출량 0.25mg/ L** 역시 수사단서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
- 국과수 부검의견서에 보면
- 혈액과 위내용물에서 졸피뎀, 디아제팜이 검출되고 혈중농도가 **0.196**으로 검출되는 바, 변사자는 사건 발생 당시 이러한 약물 및 알콜의 영향 하에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소견
- 경찰이 박용철 살해자로 지목한 형 박용수에게서도 졸피뎀과 디아제팜이 검출된 것은 정말 의혹. 왜 경찰은 왜 수사발표 당시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는지 의문
- 박용수 혈중 졸피뎀은 **0.01mg/ L**이고, 디아제팜 정량한계 이하 검출됐다. 혈중 알콜 농도 **0.01%** 미만이라고 한다.

- 졸피뎀, 디아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데 졸피뎀, 디아제팜을 어디서 확보된 것인지 규명이 안된 채 사건이 종결
- 일단 경찰에 따르면 박용철, 박용수 병원진료기록에도 처방된 사실이 없으며, 두 사람 모두 인터넷 구매흔적도 없다고. 이것이야 말로 이번 사건에 제3자가 개입한 정황증거
- 경찰이 박용수가 구입한 칼을 어디서 얼마주고 구입했는지, 현금으로 샀는지 카드로 샀는지 다 밝혀냈는데 정작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출처가 어디인지 규명하려 하지 않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약물검출 사실 자체를 함구하고 있었음

### [의혹3] 자살하러 가는 사람(박용수)이 정장제를 복용해?

- 경찰에 따르면 박용철을 죽였다는 박용수가 동생을 죽이고 자신이 죽기 20~30분 전에 설사약을 복용. 이게 말이 안됨. 보통 알약 정장제의 경우 위 안에서 30분 이내 용해돼 흡수됨. 약이 빨리 용해돼야 약효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 오래동안 녹지않고 지속돼야 할 약도 있음. 예를 들면 유산균처럼 대장까지 갈 동안 위산에 죽지 말라고 특수 코팅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 이 경우 식도를 지나, 위를 지나, 대장소장을 지나는데 1시간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그런데 말도 안되는 것이 박용수의 위장에서 정장제(장기능을 조절하는 약물로 설사, 변비 등에 사용)가 검출. 위장에서 용해되지 않은 채 알약 그대로 발견. 알약에 적혀있는 글씨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사망직전이나 적어도 사망 30분 이내에 복용했다는 증거
- 사건 당일 상황으로 돌아가 경찰 말대로 박용수가 용철이를 죽였다면 일단 용철이 죽은 장소 수유분소에 박용수가 있어야 하고 박용수가 자살을 하려면 자살현장인 용암문까지 이동해야. 물론 그 중간에 살해도구인 칼과 망치 등을 여기 저기 던지고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임. 그러나 이런 것 다 빼고 바로 야밤에 수유분소에서 용암문으로 달려갔다고 가정할 경우 그렇더라도 1시간 30분이상 소요되는 거리
- 전문산약인이 갔을 때 이야기. 용수는 전문산약인이 아니고 새벽 2시가 넘

은 야밤이니 이동시간은 훨씬 더 걸렸을 것임.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박용수가 자신이 자살하기 20분전에 “아, 나 설사약 먹어야지” 하고 약을 먹었다는 결론. 그리고 20~30분 내에 바로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 이해가 안됨

- 곧 죽을 사람이 설사약을 복용한다는 자체가 이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죽은 상태에서 목매달 게 아니라 산 상태에서 목을 매면 똥이나 오줌을 싸다는 것임. 이걸 가장하려고 설사약을 강제로 먹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다른 한 추정은 박용수가 산길로 수유분소에서 용암문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아니면 본인이 차를 몰고 우회해서 갔다고 가정할 수도 있음. 지도를 보면 우회도로가 있음.
- 네이버 길찾기를 해보면 5.87km이고 이동시간은 24분으로 나옴. 중간 중간에 교통단속 카메라나 CCTV가 설치돼 있으니 박용수가 이 코스로 이동했는지도 확인한 수 있을 것. 그렇더라도 용암문에서 자살하기 20~30분 전에 설사약을 먹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 [의혹4] 박용수 유서 필적 의문

- 경찰은 박용수가 자살한 것으로 단정하면서 유서를 언급. 박용수는 박용철의 4촌형으로 강북구 우이동 용암문 옆 나뭇가지에 밧줄로 목매 사망했다. 바지 좌측주머니에서 유서와 박용철의 차량 열쇠 발견됐고, 변사자 주변 가방에서 회칼 등이 발견됐다는 것
- 박용수가 자살전 유서를 쓴다면 일단 노모가 살아계시니까 어머니에 대해 죄송하다는 생각부터 들지 않았을까? 그 다음 뭐 세상을 비관하거나 경찰이 죽었다고 하는 박용철을 욕하거나 뭐 그런 말이 적혀있어야 정상  
근데 전혀 아님. 딱 3줄

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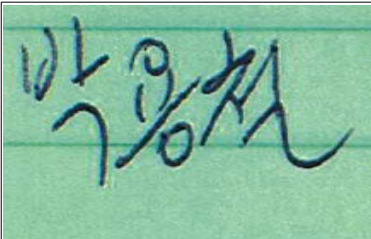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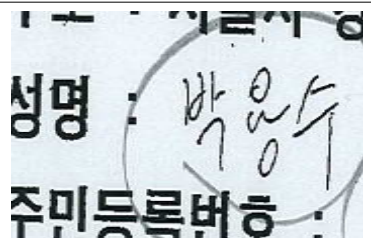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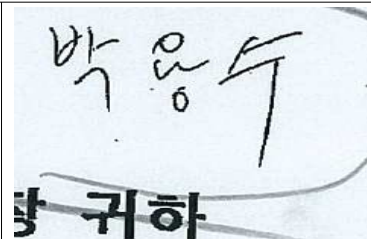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매형(서 \* \*) 010(핸드폰 전화번호)

- 일단 유서내용도 이상하지만 유서를 대학노트에 썼는데 딱 유서만 쓰고 찢은 것. 근데 유서가 있는 종이와 뒷면에 눌러나온 자국을 복원해봤더니 유서내용과 틀린다는 것. 유식한 말로 압흔에는 매형(서 \* \*) 010 이 부분이 안나오는 것임
  - 유서를 두 줄 쓰고 나서 찢은 상태에서 마지막 매형 이 부분을 적었다는 것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는 추후 밝혀야 함
  - 유서는 바지 주머니에서, 유서를 작성한 노트는 여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경찰은 **여관CCTV를 통해 출입자를 확인하지 않았음. 여관CCTV 외에도 인근 도로상의 CCTV도 있으니 이와 관련 조사가 진행돼야 함**
  - 유서를 박용수가 썼는지 아니면 다른 살해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썼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박용수가 작성한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을 입수해서 봤더니 오피스텔 입주신청서 상에 자기이름, 마지막 서명란에 쓰인 용자하고 박용수가 갖고 있었다는 기자수첩 싸이즈 노트의 박용철 연락처를 적은 부분의 용자가 완전 틀림
- 물론 국과수도 동일인 필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비교해야한다는 입장. 일단 확보된 사진을 보면 다소 의문

<박용수 필적 ‘용’자 비교>

		
박용수 소지품 ‘용’자	오피스텔 입주신청서 이름란	오피스텔 입주신청서 서명란

[의혹5] 박용수가 카드로 구입했다는 회칼, 정작 범행에 사용안됨

- 경찰에 따르면 2011. 7. 26 박용수가 살해의도가 있어서 황학동 주방용품 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미리 샀다고 하는 일제 회칼(40cm)이 가방에서



발견됐으나 정작 용철 혈흔은 발견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은 걸로 보임**

- 망치에서도 박용수 지문이 확보되지 않음
- 용철 살해현장에서 **60m**지점인 계곡에서 발견된 과도(**16.5cm**)에서 용철이 혈흔이 발견됐으나 박용수 지문은 검출 안됨. 그런데 박용수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칼을 샀다는 것만 강조했다지 정작 그 칼에서 용철이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
- 그리고 범행도구를 카드로 구입했다는 점도 상식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경위도 밝혀져야 할 것. 실제 용수가 카드로 결제했는지, 다른 사람이 용수 카드로 칼을 구입했는지

#### [의혹6] 피살현장 족적, 제3자개입 여부 미확인

-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 존재 여부
  1. 거구인 박용철을 왜소한 박용수가 혼자서 살해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고
  2. 박용철 피살장소에서 박용수 사망장소간 이동 과정에서 혼자서 모든 일들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고
  3. 박용철 살해수법이 전문가가 사용하는 수법(찌르고 돌려서 빼는 수법)이 확인됐지만 박용수가 그런 수법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단서가 없고, 특히 열차례 이상 자상과 망치로 때리고 하는데 1명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납득이 안가고, 범행에 사용된 과도를 구입한자, 사용한 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
  4. 증5a호 사건현장에서 수거된 <EDGE> 담배꽂초 필터에서 박용철, 박용수와 다른 남성 DNA 검출됐고
  5. 박용수가 자살하는 데 사용한 밧줄 등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밧줄의 매듭수법이 보통사람은 이해가 안가는 수준인 점
  6. 가장 중요한 것은 박용수, 용철이가 사용한 핸드폰이 사라졌는데 누군가가 가져간 것이 아닌가 추정
- 박용철, 박용수 사망현장이나 이동경로로 추정되는 곳에서 제3의 인물의 족

적을 확인하지 않은 점 의문.

### [의혹7] 박용철(용수) 휴대폰 실종, 위치/통화내역 중요

- 박용철은 신동욱교수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회장님이 지시했다'는 부분을 녹음한 자신의 핸드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음
- 박용수 휴대폰에서도 박용철 핸드폰 번호가 3개 적혀 있음
- 박용철은 피살 전날인 2011. 9. 5일 21시까지도 가족과 통화했음
- 용철/용수가 대리운전으로 이동 중 박용철 자택이 있는 일산이 아니라 수유리로 방향 변경하였는데 이때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지, 아니면 박용수가 묵었던 여관 주인에게 부재전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관주인 외에 다른 제3자와 통화한 사실은 없는지 등이 규명돼야 함
- 사건 전후 1주일 정도의 통화내역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특히 노래방을 떠나서 수유리로 이동한 시간대~박용수가 발견된 9월 6일 아침 9:30분까지의 통화내역은 정말하게 조사돼야. 무엇보다 휴대폰 소재를 우선 파악해야 하는 것
- 전화번호를 추적하면 분실전화기 위치는 금방 알 수 있음

추가 제보 받습니다.